

피지컬 AI 글로벌 전문가 500여명 한자리에

서울 코엑스서 '2025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 성료…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기업 실증 사례 소개 등

AI가 현실 세계와 융합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앞당기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피지컬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 활용 전망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 센서 등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이다. 제조 공정의 자동화는 물론 물류, 농업, 의료 분야까지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로 도와 한국인공지능학회, 전북대, KAIST가 공동 주관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

동영·최형득·이성운 국회의원, 류제명 과기부 차관, 박운규 NIPA 원장 등이 참석했다. K-피지컬 AI: 글로벌 제조혁신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스마트제조 분야 세계 석학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오전에는 박태완 과기부 정보통신

산업정책관이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메릴랜드대 Jay Lee 교수와 UCLA 데니스 흥 교수 가 기술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필립 제라드 노키아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와 이재민 현대차 E-Forest 센터장은 글로벌 기업의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특별토론회에서는 기술 상용화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향후 피지컬 AI 기술을 도내 기업의 제조혁신에 적용하고, 로봇·센서·AI 모델 실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

업 생태계 조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실증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도내 기업의 제조혁신 기술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봇·센서, AI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피지컬 AI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경쟁력을 결합하면 AI 3대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며 "전북은 국내 최초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19일에는 한국인공지능학회 주관으로 피지컬 AI 투토리얼과 특별세션으로 열려 기술·지식 확산과 연구자 간 교류가 이뤄졌다.

/이만호 기자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오늘 첫 분양

근생용지 등 시장에 최초 공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첫 분양 대상지인 균생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21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약 12일간 확

인할 수 있으며, 공고 개시 후 13일째 되는 날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분양' 대상지 69필지는 향후 상

업·생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분양은 단순한 용지 공급을 넘어, '새만금 수변도시'의 첫 주민이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67필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단독주택용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전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김 지사, 내년 국가예산 막바지 분주

예산실장 면담 통해 새만금 등 핵심사업 직접 설득

서울 현장 전략회의로 실국별 대응상황 전면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국회를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과 국가예산 현장 전략회의 등 연이은 일정을 진행하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정부예산안이 예결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된 이번 일정은 전북의 주요 현안과 중점사업을 기재부 예산실 기부에 직접 전달하고, 예결소위 대응 전략을 짐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 기재부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만나 전북의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협곡산업클러스터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새만금 신항 항로 준설 △전북권 통합체육병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센터 등 신규·계속사업은 올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부각했다.

예산총괄심의관 면담에서는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국가정원 조성 △AI기반 차세대 엑소소프트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AI 한글화 교육센터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등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서울 종합협력본부에서 도 기획조정실장 등과 함께 예결소위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규 중점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발전효과를 제시했다.

면담을 마친 김 지사는 서울 종합협력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중앙협력부부장, 실·국장들과 함께 예결소위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실·국장들은 국회의원실과 기재부 예산실 방문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액 요청사업의 심사 흐름, 감액 위험, 보완 필요

쟁점을 종합 보고했다.

김 지사는 부처와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따라 설명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러 심사 과정에서 감액 제기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 간 공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예결소위는 최종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와 자료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기재부·국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우수사례' 2관왕 쾌거

행안부장관상·지방시대위원장상 수상…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금융허브 조성 노력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분권정책 부문)과 지방시대위원장상(균형발전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5대 전략별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되었으며, 분권정책 부문과 균형발전 부문 모두 선정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종합정책부처와 지방정부, 초광역권이 협력하는 실천형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전북자치도는 분권정책 부문에서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우수사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분권정책 부문)과 지방시대위원장상(균형발전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과자치역량 강화를 이끌어냈다.

를 구축하고, 도·시·군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분권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

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금융산업 특례를 반영하여 금융기관 집적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은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 전북의 강점인 자신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특화산업을 연계한 금융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3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 5년간 노력 끝에 스웨덴서 115억 세금 환급 성공

매년 약 86억원 절감… 해외 공적연금 중 두 번째 쾌거

국민연금공단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확보하며, 그간 납부한 약 11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앞으로 매년 약 86억원(2024년 기준)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달 28일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명확한 결정 기한이 없어 심사가 5년 가까이 지연됐다. 국민연금 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과 협력 세무부문을 거쳐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환급 결정을 재촉했고, 결국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내 연기금 최초로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이른둥이 흡커밍데이' 성료

전북대병원, '이른둥이 흡커밍데이' 성료

랑과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농장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가금농장 1,150호에 대해 2차례 방역점검을 진행했으며, 1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철새로 인한 AI 전파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앙조류퇴치기 31개 소를 신규 설치하고, 철새도래지 10개 소와 수변 3km 내 가금농가 102호에는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축사 소독 강화, 출입 차량 통제, 앙조류 차단망 설치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신란을 저하나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랑과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농장별 맞

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가금농장 1,150호에 대해 2차례 방역점검을 진행했으며, 1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철새로 인한 AI 전파 차단에도 만전

을 기하고 있다. 앙조류퇴치기 31개 소를 신규 설치하고, 철새도래지 10개 소와 수변 3km 내 가금농가 102호에는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축사 소독 강화, 출입 차량 통제, 앙조류 차단망 설치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신란을 저하나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가는 미흡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철새로 인한 AI 전파 차단에도 만전

을 기하고 있다. 앙조류퇴치기 31개 소를 신규 설치하고, 철새도래지 10개 소와 수변 3km 내 가금농가 102호에는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축사 소독 강화, 출입 차량 통제, 앙조류 차단망 설치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신란을 저하나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경위, 정읍자율방법대와 야간 합동순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정읍시 자율방법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과 비롯해 염성진 도의원, 정읍경찰서, 정읍시청 관계자, 정읍자율방법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도심 상가 주변, 원룸 밀집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부안 등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야간 순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문 지역에 확대해 자율방법대와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